

섬김의 목회에 대한 구약성서적 반성

천사무엘 <<< 한남대학교 교수 / 구약학

1.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응답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했을 때, “종교가 정신적 문제에 만족스런 답을 준다”는 답변이 개신교가 59.2%로 천주교(44.8%)나 불교(38.1%)에 비해 높았다. 또한, 종교인들의 역할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76.1%)는 천주교(67.4%)나 불교(58.0%)보다 높았다. 그러나 올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라고 답한 사람은 18%로 천주교(35.2%)나 불교(31.1%)에 비해 훨씬 적었다. 또한, 종교별 호감도에서도 개신교(20.6%)는 천주교(29.8%)나 불교(31.5%)에 비해 낮았다. 2006년 발표된 통계청의 종교별 인구조사에서 천주교(74.4%)나 불교(3.9%)는 신도수가 증가한 반면 개신교는 감소했다는 통계 수치는 개신교회의 위기를 또 다시 보여 주는 것이다.

4년 전 통계가 보여 주는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국 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개신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해 왔고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최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통계수치는 교회가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목사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교회의 운영이나 선교 방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한다. 즉 ‘변화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다시금 서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적응해야 하고 복음을 해석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다양성, 극우에서부터 극좌까지 분포되어 있는 정치집단들의 다양성, 세계화와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인종적 다양성,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방화와 지역화, 그리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다양성 등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 의사소통이 주류를 이루는 모더니즘에서 인간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성의 인정은 필연적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적절히 수렴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다.

목회와 선교도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열린 사고를 갖지 못할 때, 교회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과 연관되어 버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비쳐져 고립된다. 예를 들면, 교회와 목회자가 보수를 외칠 때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대치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교 동력을 잃게 된다. 또한, 목회자의 사고와 교회의 선교방향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를 적절히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교회와 복음은 날

은 시대의 유물로 비치고, 기독교 신앙은 삶과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다원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회와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신학과 목회와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섬겨야 할 이웃과 방법이 다양해졌고, 목회자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섬기는 자에 대한 재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충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성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성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본인 성서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서문자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중세교회의 알레고리적이고 교리적인 성서해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서를 역사적, 문학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성서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영적인 해석(영해 “靈解”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이나 교리적인 해석, 교회의 사업과 헌금을 위해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성서해석 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대학에 고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진학하는 상황에서 교회나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성서의 의미나 해석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세계 2위의 대학 진학률에 걸맞는 지성과 영성의 성서해석과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 성서 본래의 의미와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목회자”와 “목회”의 성서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우리말 “목회자” 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니스터”(minister)인데, 이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Vulgate)는 히브리어 “메샤레트”(meshareth)를 번역하면서 “종”, “하인”, “시종” 등을 뜻하는 “미니스테르”(ministe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출 24:13; 33:11; 민 11:28; 신 1:38; 삼상 2:11; 삼하 13:18; 왕하 4:43; 6:15; 잠 14:35). 히브리어 명사 “메샤레트”는 “시종들다”, “봉사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라트”(sharath)에서 온 것으로 “부하”, “수종자”, “하인”, “봉사자”, “신하”, “하인”, “보좌관”, “섬기는 자” 등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어원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구약성서적 시각에서 목회자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목회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종이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마 6:10)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일에 충실한 종의 심정으로 동참하는 것이 구약성서가 가르치는 목회라는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CEO를 흉내 내려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작은 자의 편에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편을 갈라놓는 정치집단의 논리에 말려들어 견해가 다른 집단을 정죄하고 그들로부터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하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힘을 과

시하려 한다. 목회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하나의 기업체나 사업체 혹은 비기독교인들과는 상관없는 특정 이익집단으로 비치게 한다.

다양한 집단과 견해를 포용하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의 정체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목회자 자신의 이름이나 그가 속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종의 모습이 요구된다. 물질주의와 인기주의, 권위주의와 업적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3. 구약이 제시하는 섬김

구약성서에서 섬김 혹은 봉사는 히브리어로는 “아보다”(aboda)이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지칭한다. 하나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submission)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다른 사람에 대한 굴종(bondage)이다. 이 두 가지 의미 중 섬기는 자로서의 목회자와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전자인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연관되어 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 즉 섬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의적으로 섬기는 것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먼저,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것 등이다(출 40:13; 민 18장; 삼상 2:18). 따라서 제의적 의미의 섬김은 예배, 찬양, 예물봉헌 등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 즉 토라(Torah)이다. 토라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율법”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토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라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토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법을 문자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토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복음, 즉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셨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다.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계명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이 없는 제의적인 섬김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사무엘 예언자는 사울을 꾸짖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새번역, 삼상 15:22)고 말했다. 또한,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새번역, 호 6:6)고 말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성되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통한 섬김과 순종을 통한 섬김, 이 둘의 회복이 필요하다. 먼저, 예배는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배에서 설교자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코미디 같은 “재미”와 연예인 같은 “인기”에 대한 강박관념은 설교자 자신을 병들게 하고, 설교를 말장난 내지는 궤변으로 추락시킨다. 그리하여 재미있게 들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설교,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가 되는 것이다. 코미디언의 재미있는 연기가 금방 고갈되거나 진부해

지는 것처럼, 연예인의 인기가 오래 지속되기 힘든 것처럼, 재미와 인기를 추구하는 설교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설교자가 드러날 때 설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선포가 될 수 없고,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아닌 것이다.

예배자들 역시 예배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섬김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예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스트레스 해소 정도가 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진행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간증적 이야기들이나 선동적 언행, 그리고 신학적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언어 등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서 시대와 교회 역사에서 예배가 엄격한 순서로 진행되었고 인간의 말을 최대한 억제한 것은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의식으로 인식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종교적 기록성”을 추구하는 가톨릭의 전통적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순종의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의 준비이자 완성이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한 섬김을 되돌아보고 준비해야 되며, 예배인도자와 설교자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예배자들이 하여금 말씀의 사회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럴 때 예배와 순종은 이 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섬김이 된다.

4. 교회의 사회봉사

교회의 사회봉사(social service)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여겨져

그리스도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은 사상과 이념, 종교를 초월하여 교회가 끊임없이 행해 온 사역이다. 구약성서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봉사는 복증을 통한 섬김에 속한다.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구약의 사회봉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임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봉사는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 중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복음 선포와 함께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의적 섬김인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사회봉사의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관여를 보여 주고 있다(출 2:23-25). 하나님은 정치-사회-경제적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신명기는 고아, 과부, 떠돌이, 외국인, 가난한 제사장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신 14:29). 이들이 고통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또한, 예언자들은 부정한 권력자들과 지배계층에 의해 파괴된 사회정의에 대해 선포한다.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감당할 수 없는 세금제도, 비인간적인 고리대금업, 빚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흉작으로 빚진 농민들을 헐값에 노예로 사고파는 인권 유린, 결손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자들의 비판과 절규의 대상이었다. 이상과 같은 실례들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봉사 사역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의 가르침을 진리의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사회봉사를 위해 부류 사회에서 소외된 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단순한 구제를 뛰어 넘어 사회정의와 인권, 경제적 불평등, 부정과 부패 척결 등에 이르기까지도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의 삶은 사회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 저자(신 16:14-20)나 호세아(호 12:7), 아모스(암 5:7, 24), 미가(미 3:9) 등과 같은 예언자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집권층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의의 유무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관심 정도는 사회정의를 판단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봉사 사역이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보다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의미한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원을 둘로 나누어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으로 구분하고, 개인구원이 먼저이고 사회구원은 나중이라는 논리는 구약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위 “개인”이란 개념은 근대사회에서 발전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개념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덜 “개인적”이다.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독립시켜 사고하지만, 한국인들은 “개인”을 가정이나 지연 혹은 학연 등의 공동체와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고하지 못한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했던 한국계 미국대학생의 총기난사 사건 때 한인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불안감을 나타냈지만, 학생 개인의 문제이지 한인사회와는 상관없다고 한 미국인들의 말은 이를 나타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성서시대에 “개인”의 존재를 공동체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성서시대에 개인은 공동체 자체이거나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성서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예배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순종을 통한 섬김이자 복종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5. 맺는 말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해 복음을 전해 준 미국 장로교회(PCUSA)에서 현재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피스메이커”(peacemaker)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땅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신앙고백이자 믿음의 표현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현하는 섬김의 목회다. 이를 위해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신학과 종교의 차이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과 문화, 학연과 지연, 남녀노소의 구별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목회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구약성서의 가르침이다. 섬김의 목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림(=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도전이 되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천사무엘** 연세대학교(Th.B., Th.M.)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미국 예일대학교(S.T.M.)를 나와 미국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GTU, 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한남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다.